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차단 인공산 만든다

여수시, 대체녹지 탄력…산자부 환수금 173억 사용 승인
삼동지구에 2022년까지 높이 25~30m 규모 인공산 조성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막기 위한 인공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산단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대체 녹지 조성은 삼동지구에 인공산을 만들고 위에 방풍림을 조성해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2017년 1차로 95억원을 투입해 여수산단 인근에 길이 270m, 높이 30m 크기의 인공산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5%다.

이번에 산자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음에 따라 173억원을 들여 2·3구간에 걸쳐 총길이 230m, 폭 100m, 높이 25~30m 규모의 인공산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 권한금 253억 원 중 삼동지구 혁신산단 조성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금이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6개 기업은 2014년부터 공장 증설을 위해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정부 권한금의 대체녹지 조성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사용처에 대한 이견으로 대체녹지 조성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민선 7기 들어 산자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설득에 나서 결실을 맺게 됐다.

여수시는 산단 인근에 인공산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께 155억원을 들여 전라선 폐선 부지(둔덕~옛 덕양역사)에도 방풍림 공원을 조성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가 변경으로 발생한 지가 차액은 녹지를 조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를 설득해 승인을 받았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단의 오염원 차단 등 대체녹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경로당·어린이집 등 33곳에 '하얀 지붕' 설치 실내온도 낮춘다
2억4000만원 투입 쿨루프 조성

여수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옥상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는 '쿨 루프(Cool Roof)' 사업<사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쿨 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페인트를 칠해 여름철 건물 내 온도를 4~5도 낮추는 효과를 낸다. 냉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 '2020년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국고보조사업'에서 여수시가 선정돼 국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유일하다.

여수시는 7월 중순까지 총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33곳의 옥상 6120㎡에 햇빛과 열을 75% 이상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로 도색한다.

올해 공사를 하지 못하는 34곳은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쿨 루프를 꾸밀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쿨 루프는 건물 내 온도를 4~5도 낮춰 냉방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어르신과 어린이의 폭염 피해를 막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LG화학 SM공장 긴급 안전 점검

인도 가스 누출 사고 관련 가스 누출 감지기 가동 상태 등 확인

여수시가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스티렌(Styrene)을 취급하는 LG화학 여수공장에 대해 안전 및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지난 19일 LG화학 SM공장을 방문해 조정실 가스 누출 감지기 가동 상태와 누출 시 비상운전 매뉴얼 등을 확인했다. 취약 시간대 누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와 인근 회사 비상연락 체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권 시장은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코로나19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이 매우 어렵지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37억 원 규모로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수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석유화학공장 운영 인력 양성과 광역·다차원 실시간 대기환경 관리 플랫폼을 마련해 효율적인 에너지·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11~15일 여수산단과 하남산단 등 스티렌 취급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스티렌을 연간 17만t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들여온 1만3000t은 수입물량으로 대체해 사용할 계획이다. 스티렌은 자동차 내장재나 가전제품, 식품보관 용기, 포장재, 일회용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지난 7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800~1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9일 LG화학 SM공장을 방문해 안전 및 환경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구례군, 음식점 등 220곳에 해충잡는 포충기 설치 지원

구례군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해충을 유인해 없애는 포충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1760만원을 들여 지역 식품접객업소 220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영업자 부담금은 50%이며, 오는 28일까지 구례군 문화관광과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례군지부에서 신청을 받는다.

구례군 관계자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포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서귀포·횡성, 생태문화도시 교류 '첫걸음'

순천서 '도농복합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예비 문화도시 순천시와 제주 서귀포시, 강원 횡성군이 생태문화도시 첫 교류행사를 열었다.

순천시는 서귀포시·횡성군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순천 문화의거리 장안창작마당에서 '도농복합 생태문화도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3개 지자체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도농복합'이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각각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105개의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사람에서 출발하고 사람에 기반하며 사람을 키우는 도시 홍성'을 슬로건으로 '생태'가 기반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지자체 첫 교류행사로, 문화도시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은 '문화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과 정책 과제, 주제별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다음달 2일 홍성에서 '문화도시의 힘'을 , 같은달 23일 서귀포에서 '문화도시의 지속'을 주제로 이어간다.

한편, 순천시는 예비 문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순천 도큐멘타 생태문화 아카이빙', '시민의 아이디어 뱅크', '생태예술교육-작은도서관 활성화', '문화 귀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 열린 주차장 조성

뚝방마켓·전통시장 방문객 차량 주차난 해소 도움

곡성군은 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해 섬진강기차마을 옆에 356면(장애인 10면) 규모의 열린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차장 조성으로 기차마을 등 성수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은 섬진강기차마을 옆에 356면 규모의 열린 주차장을 조성했다.

특히 공원 밖으로 조성해 뚝방마켓과 전통시장 방문객은 물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다.

곡성군은 기존에 기차마을 내부 주차장 일부를 장미공원으로 조성해 장미공원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중 일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